

코로나19 이후 지역별 고용 변화

○ 코로나19로 시작된 고용 충격의 지역별 변화 양상을 살펴봄.

- [그림 1]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지표의 변화를 1) '코로나19 충격의 크기'와 2) '최근까지의 회복 정도'로 구분함.
- '코로나19의 충격'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4월 전년동월대비 수치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월¹⁾ 전년동월대비 수치를 뺀 값임. '최근까지의 회복 정도'는 7월의 전년동월대비 수치에서 4월 전년동월대비 수치를 뺀 값임.
- 다만, 고용지표별로 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는 <표 1>에서 보듯이 차이가 있음. 취업자 수는 4월에 감소폭이 최대치를 보였고, 일시휴직자는 3월에 증가폭이 최대였음. 실업자 증가는 5월이 정점이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4월에 증가폭의 최고점이 관찰됨. 따라서 충격과 회복 유형의 정의에서 정점 시기는 고용지표별로 다름.

<표 1> 고용지표에 따른 코로나19 충격 정점 시기 및 각 변화 유형별 구성의 차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고용지표	코로나19 충격의 정점 시기						변화 유형별 구성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충격	회복
전체 취업자	492	-196	-476	-392	-353	-277	4월-2월	7월-4월
전체 일시휴직자	142	1,260	1,130	684	360	239	3월-2월	7월-3월
전체 실업자	-150	-17	-73	133	91	41	5월-2월	7월-5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26	515	831	556	541	501	4월-2월	7월-4월

주 : 1)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코로나19 충격이 고용지표별로 정점이었던 시기임.

2) 충격은 정점 시기 증감에서 코로나19 이전 시기(2월) 증감을 뺀 값임. 회복은 최근(7월) 증감에서 정점 시기 증감을 뺀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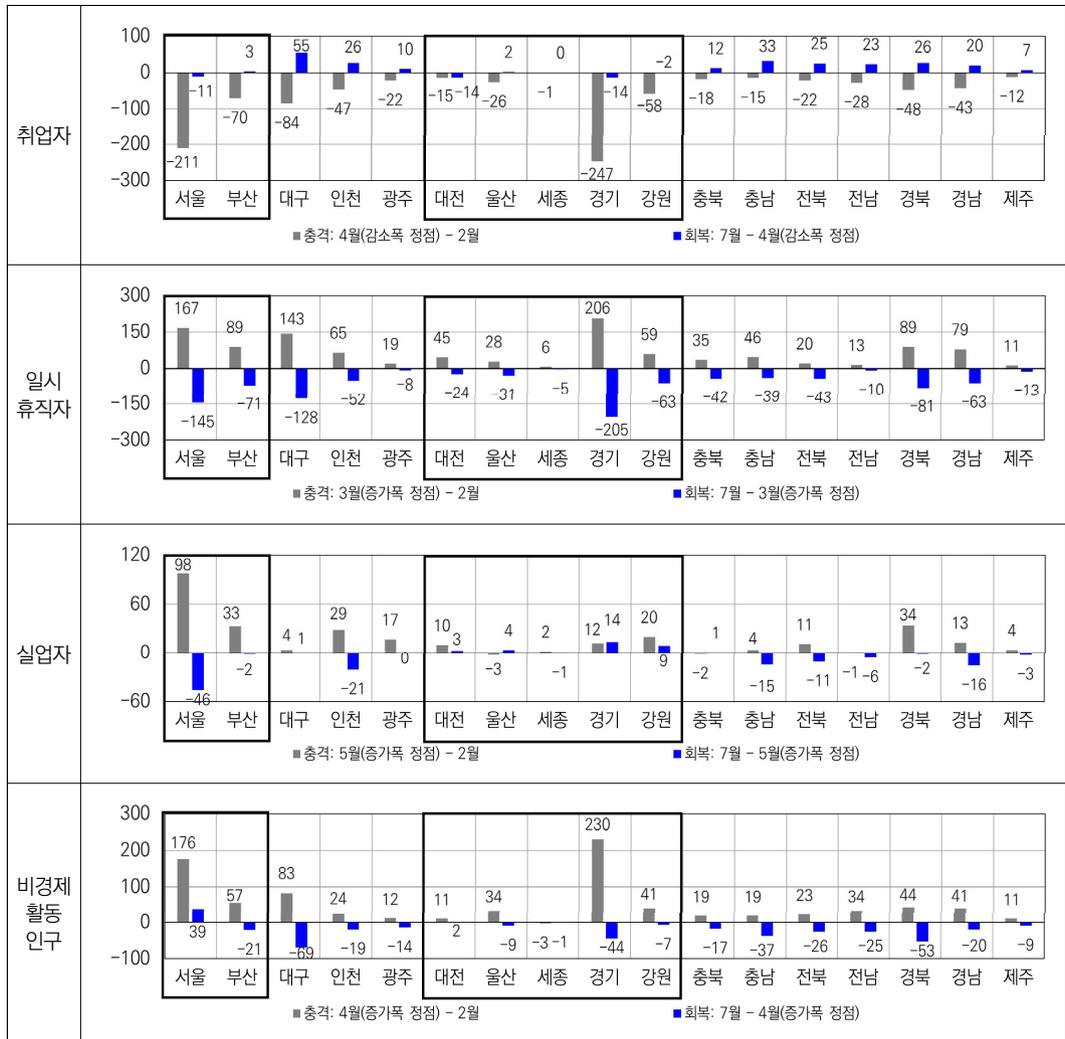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1) 2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월 9~15일을 기준으로 함. 2월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임.

○ [그림 1]의 취업자 수 증감 변화를 보면, 주로 인구 규모가 큰 서울, 부산, 경기 등 광역시도를 중심(굵은 테두리)으로 고용 회복이 부진하였음. 반면, 대구, 인천, 광주와 더불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는 저점 이후 고용 개선이 나타나고 있음. 전반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방에서 고용 충격이 약했고

[그림 1] 시도별 취업자, 일시휴직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수의 변화 유형별 차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1) 취업자 수 감소폭 정점은 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이 가장 컸던 4월로 정의함. 일시휴직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수 증가폭 정점은 각각 전체 일시휴직자 수, 실업자 수, 비경제활동인구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가장 컸던 3월, 5월, 4월로 정의함.

2) 굵은 테두리 안의 지역은 고용 회복이 부진한 지역임. 그 외의 지역은 고용 회복을 보이는 지역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회복 속도 역시 빠름.²⁾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일시휴직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여 2월 수준으로 회복함. 반면 실업자는 증가폭 정점 대비 감소하는 지역이 많지 않음. 회복 부진 지역의 경우, 서울에서 감소하였으나 경기 및 강원에서는 증가함. 회복 지역에서는 인천, 충남, 전북, 경남에서 실업자가 감소하였지만 경북에서는 변화가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일시휴직자와 비슷하게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함. 회복 부진 지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서울에서는 증가폭 정점 이후 오히려 증가하였고 부산 및 경기에서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음. 회복 지역의 경우, 대구를 중심으로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함.

○ 회복 부진 지역인 서울과 경기도는 확연히 다른 방향을 보임.

- 두 지역은 취업자 수가 호전되지 못한 점에서 유사함. 하지만 서울에서 실업자는 정점 대비 감소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실업자가 정점 시기 이후 더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였음.
- 학력과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보면(표 2 참조), 서울에서는 고졸자 취업이 증가하였지만, 대학 졸업자의 취업은 감소함. 서울지역에서 임금근로자 고용은 4월 이후 더 악화되었지만 일용직 고용은 개선됨. 경기도에서는 반대로 중졸 이하와 특히 4년제 이상 졸업자의 고용이 호전되었고, 임시직 고용도 증가하였음.
- 서울에서는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자가 감소하였고,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짐. 또한 고용 회복이 단기 일자리 위주여서, 서울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음. 경기도 역시 전체 취업자의 회복은 부진하지만, 취업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였음. 대졸자 및 임시직 중심으로 개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됨³⁾

○ 회복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구·경북과 경남의 취업자 수 변화 역시 차이가 있음.

- 대구·경북은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빠르고 크게 나타난 만큼 취업자 수 감소도 큰 편이었으나 회복 역시 빠르게 나타남.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2) 회복 부진 지역 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비중의 단순 평균은 2019년 기준 74.2%임. 회복 지역은 64.1%임.
 3) KOSIS상 행정구역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수는 육아, 가사, 통학과 그 외 나머지만 기타 사유로 구분됨. 기타는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및 기타 사유를 포함함. 이 중 연로와 쉬었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로의 숫자는 월별로 비교적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변화의 상당부분은 쉬었음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쉬었음이 포함되는 기타 사유 비경제활동인구는 서울에서 증가폭 정점(4월) 증감 대비 7월 증감이 +21천 명이고 경기도에서는 -63천 명임.

취업자 수 변화는 대구·경북과 비슷함.⁴⁾

- 대구에서는 학력별로 고르게 취업자 수가 회복되었고, 상용직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임시 및 일용직은 빠르게 호전되었음. 반면 경북과 경남에서는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가 고용 회복을 견인함. 한편 경북과 경남의 차이는 종사상 지위에서 나타남. 경남에서는 상용직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경북에서는 임시·일용직 위주로 고용이 회복됨.

○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의 회복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다만, 지역별로 인구 및 산업 구조가 다르고 인구 이동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고용 회복의 차이를 단순히 지역별 정책 성과의 차이로 해석하기 어려움.

〈표 2〉 학력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감소폭 정점(4월) 대비 7월 취업자 수 증감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지역별	학력별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이상	임금	상용	임시	일용
서울	-30	77	-30	-28	-10	-18	-20	29
부산	29	-12	10	-25	26	-13	6	32
대구	24	17	18	-5	51	6	27	17
인천	-12	38	-18	19	24	1	11	11
광주	-3	-2	3	11	0	-4	4	0
대전	-3	-3	-5	-3	5	-8	2	11
울산	-6	-2	6	2	4	-7	8	2
세종	2	-7	2	5	1	2	0	0
경기	21	-51	-15	28	23	-58	101	-20
강원	-3	-5	5	-1	16	-4	13	7
충북	-3	17	7	-10	19	10	6	4
충남	15	15	7	-4	10	8	-1	1
전북	7	8	16	-3	30	12	11	6
전남	14	1	21	-11	12	2	13	-3
경북	-1	2	-5	30	11	1	8	2
경남	3	5	-23	40	18	12	-6	13
제주	-2	-1	7	2	-2	3	-1	-2
총계	53	97	5	44	237	-51	181	109

주 : 전체 취업자 수 감소가 가장 컸던 4월을 감소폭 정점으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4) 대구의 7월 누적 확진자 수는 6,940명이고, 경북과 경남은 각각 1,401명, 159명임.